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석사 학위논문

바다보트피싱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2014년 2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체 육 학 과

남 상 출

체육학석사 학위논문

바다보트피싱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지 삼 업

이 논문을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남 상 출

남상출의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21일



주 심 체육학석사 이 태 응 (인)

위 원 철학박사 문 선 호 (인)

위 원 이학박사 지 삼 업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3. 연구 문제	7
4.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7
5.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1. 낚시의 역사	10
2. 낚시의 개념	12
3. 낚시의 종류	12
1) 민물낚시	13
2) 바다낚시	13
3) 루어낚시	14
4. 바다낚시의 종류	14
1) 갯바위낚시	14
2) 방과제낚시	15
3) 백사장낚시	15
4) 보트피싱	15
5. 스포츠피싱의 개념	19

III. 연구방법	22
1. 질적 연구의 적합성	22
2. 연구 참여자	23
3. 자료 수집	24
4. 자료 분석	25
5. 신뢰도	26
IV. 연구 결과	27
1. 바다보트피싱 성장 전망	27
1) 지속적인 동호인 증가	27
2) 낚시 동호인은 잠재적인 보트 구매자	28
2. 바다보트피싱 참여 동기	29
1) 스포츠로서 매력	29
2) 조과 향상	30
3) 자유로움과 다양성	30
3. 바다보트피싱 참여 제약	33
1) 슬로프, 계류장 등 시설 부족	33
2) 경제적 부담	35
3) 어민과의 마찰	36
4) 관계기관의 인식 부족	39
4. 바다보트피싱 활성화 방안	40
1) 마리나 등 계류시설 확충	40
2) 보트의 국산화	43

3) 관련 법규의 정비	45
4) 규제 완화	46
V. 논의	48
1. 바다보트피싱 성장 전망	49
2. 바다보트피싱 참여 동기	49
3. 바다보트피싱 참여 제약	51
4. 바다보트피싱 활성화 방안	52
VI. 결론 및 제언	54
1. 결론	54
2. 제언	55
참고문헌	56
Abstract	60
부 록	62
1. 참여관찰 노트	62
2. 설문지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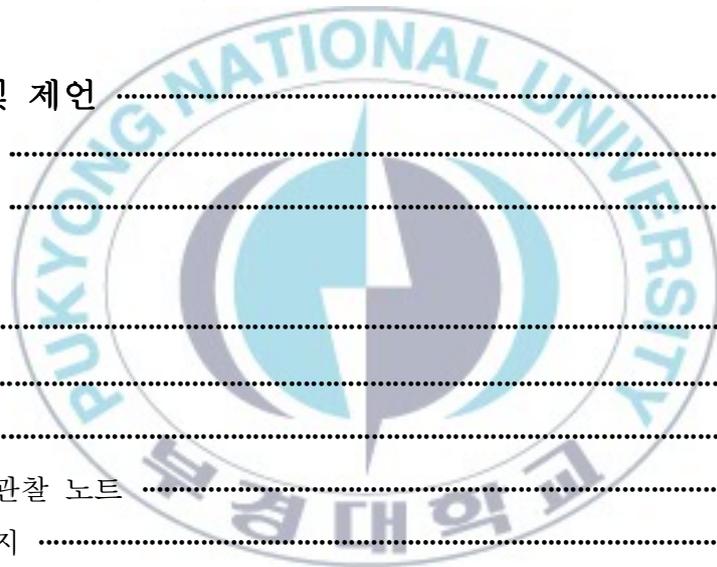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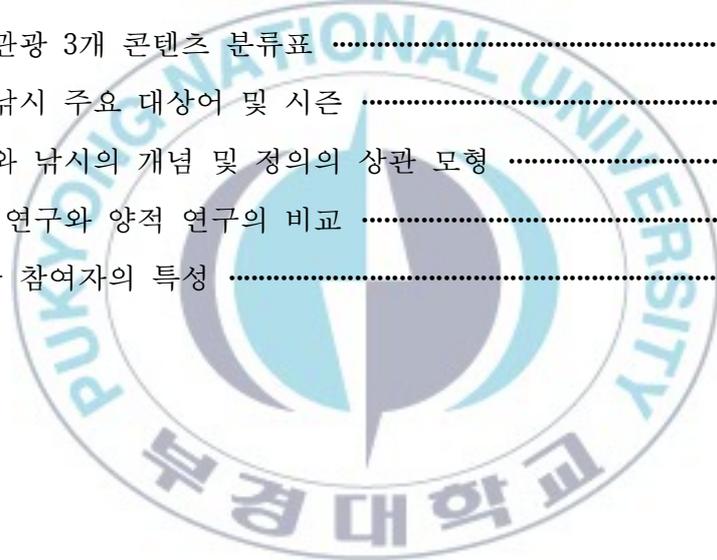


표 목 차

<표 1>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선호 순위	1
<표 2> 우리나라 낚시인구 추정	2
<표 3> 유어(遊漁)낚시 출조비용 추정 결과	3
<표 4> 낚시의 장르 구분	12
<표 5> 우리나라 낚시터 현황	13
<표 6> 해양관광 3개 콘텐츠 분류표	16
<표 7> 바다낚시 주요 대상어 및 시즌	18
<표 8> 여가와 낚시의 개념 및 정의의 상관 모형	20
<표 9>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비교	22
<표 10> 연구 참여자의 특성	2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기계화, 정보화에 따른 운동부족, 공동체의식 결여와 인간 소외로 인한 스트레스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산, 강, 바다, 호수, 하늘 등 자연을 무대로 하는 스포츠가 각광 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Brandl-Bredenbeck(1997)은 해양스포츠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강과 바다에 대한 모험심과 도전 욕구를 충족하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표 1>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선호 순위



출처: 박성쾌·김수진·김영자(2007), 여가 스포츠피싱을 통한 여가소득증대에 관한 연구, 표제 일부 수정.

우리나라는 12,051km(남한 기준)에 이르는 해안선, 3,200여개의 섬과 수심 20m 내외 해역이 국토의 1/3에 해당하며 356개의 해수욕장, 415개의 지정 어항, 2,000여개의 소규모 어항 등 해양스포츠를 위한 사회적, 산업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다(오응수, 2007).

정부에서도 해양스포츠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전국 해안을 권역별로 해양모험관광, 해양친수문화공원, 해양과학관, 해양낚시공원, 해양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뛰어난 여건과 지원에 힘입어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 분야 장비도 그 보급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러한 점에서 해양스포츠의 참가 구조는 더욱 다양화, 전문화,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용만 · 김경춘 · 정정희, 2009).

<표 2> 우리나라 낚시인구 추정

연구기관/연구자	연도	자료출처	추정인구	비고
환경부	1995	낚시면허제 추진 계획안	400만	민물 70%, 바다 30%
조계근	2000	강원도 내수면의 낚시면허제 도입 타당성 분석	500만	내수면 350만, 해수면 150만
해양수산부	2004 (2003년 기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 개발 및 시행방안	574만	한국갤럽 표본 조사 민물 66%, 바다 34%
이희찬	2010 (2008년 기준)	유어낚시 인구, 조획량, 지출 추정 연구	652만	내수면 37%, 혼합형 36%, 해수면 27%

낚시는 해양을 무대로 하는 레저 · 스포츠 가운데서도 동호인 수가 많고 시장 규모가 매우 큰 종목이다. 해양수산부(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2003년에 574만명으로 추정(표 2 참고)되었으며, 수면 이용 특성에 따라 내수면형 39.8%(228만명), 해수면형 27.8%(160만명), 혼합형 32.5%(186만명)으로 구분된다. 이희찬(2010)은 자신의 연구에 의해 추정된 2008년의 낚시인구는 652만명으로, 해양수산부와 자신의 추정치가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수준이라

면 낚시인구는 2005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5년 동안 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낚시 시장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2008년을 기준으로 낚시 동호인들의 1회 출조당 지출액에 있어 내수면형 낚시인구는 60,708원, 해수면형 낚시인구는 91,208원, 혼합형 낚시인구는 95,866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면형 낚시인구의 1인당 연간 지출액은 53만9천원, 해수면형 낚시인구는 68만4천원, 혼합형 낚시인구는 115만8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낚시인구가 출조를 위해 지출한 총금액은 2008년에 5조 2,236억원으로 추정되었다(이희찬, 2010).

<표 3> 유어(遊魚)낚시 출조비용 추정 결과

	내수면낚시	해수면낚시	혼합형낚시	합
출조비용(원) / 회	60,708	91,208	95,866	81,570
연간 출조비(원) / 회	539,045	683,967	1,157,725	802,162
	13,064	11,844	27,428	
낚시인구 총출조비(억) /년	수면별 총출조비			52,236
	내수면		해수면	
	28,514		23,822	

출처: 이희찬(2010), 유어낚시 인구·조과량·지출 추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2008년 이후 여가 시간과 국민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대중적 낚시 장르의 등장, 낚시기법의 발전, 게임 피싱 성행, 케이블 등 낚시관련 대중매체 등장 등으로 인해 낚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된 만큼 2008년 이후에도 낚시 인구와 시장규모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 시행(2012. 9. 10)되는 등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정부의 낚시면허제 구상과 맞물려 낚시계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을 일으켰으며, 오랜 기간 낚시 동호인들과

낚시단체, 정부 관계 부처,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수차례 명칭 변경과 내용이 수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낚시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수산자원의 남획, 유해낚시도구의 사용 등 낚시계에서도 우려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하고, 낚시인의 권익 향상과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및 낚시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한국낚시연합, 2012).

낚시는 현대스포츠의 내재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기존 스포츠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절정의 쾌감을 얻을 수 있으며, 놀이적 요소인 자연발생적 성격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 더욱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스포츠다. 또한 낚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술 습득의 진지함과 경쟁심을 유발한다. 더불어 채비와 기술에 따라 조과에 큰 차이가 있으며, 대상어의 크기 선택폭이 넓다는 점에서 스포츠 종목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배상우, 이광호, 2008).

스포츠피싱은 인류의 시작부터 인간과 함께 발달되어 온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전통적이며 누구나 안전하게 강, 호수, 그리고 바다 등에서 자연과 더불어 건강을 지키는 사계절 해양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정윤철, 안병훈, 2009).

현대의 낚시는 그 행위 패턴과 문화, 참여자의 의식수준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단순히 물고기를 낚는 포획행위라는 의미보다는, 최근에는 데이터와 첨단 장비까지 동원하여 물고기를 찾아내어 이를 통한 동료들과의 선의의 시합을 펼치는 스포츠의 개념까지 접목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낚시인들이 크고 작은 낚시대회나 토너먼트에 연관되어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스스로 출전하기도 하며, 낚시를 매개로 하는 레저·스포츠 행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이 지출하는 숙박, 연료, 장비 구입비 등의 비용은 곧바로 지역 경제에 연결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의 문화관광 축제에서도 낚시관련 콘텐츠를 추가하여 낚시인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김동열, 2008).

국내에서는 스포츠피싱의 장으로서 해마다 수많은 낚시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동호회 차원의 소규모 대회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인된 낚시단체나 협회, 기업 등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만 연간 최소 200회에 이른다. 이중 방송, 잡지 등 낚시관련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추정한 전국 단위 바다낚시대회는 연간 최소 100회에 이르고, 대회를 통한 스포츠피싱 참가 인원은 최소 2,000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김동열, 2008).

최근 들어 스포츠피싱은 교육학 및 체육학의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체계성과 지속성이 없어 저변 확대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더딘 성장을 보인 종목이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 스쿨(Fishing School)이 각종 단체, 협회 등을 통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지고 있으며(김욱, 2008), 초중고교 동아리 활동을 위주로 한 학교 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원(부산교육대학교) 강좌, 4년제 대학 내 정규 학과목(경기대학교, 부경대학교,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으로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및 전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영주, 2012).

체육학 연구 대상으로서 스포츠피싱은 이제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낚시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을 연구(김태호, 박성은, 2006 ; 이상고, 박정석, 2003 ; 이광남, 2003 ; 박정석, 2003 ; 조계근, 2000)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낚시의 경제적 가치 및 낚시인들의 소비 행태에 대한 연구(박철형, 2005 ; 김도훈, 2005 ; 홍성도, 2007 ; 나윤중, 강윤석, 2007 ; 박성쾌 외, 2007 ; 표희동 외, 2008 ; 강대승, 김철주, 2009)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희찬(2010)은 유어((遊魚)낚시 인구, 조획량, 지출추정 연구를 통해 낚시인구에 대한 통계인프

라의 구축과 산업적 측면에서 유어낚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배상우, 이광호(2008)는 우리나라 전통낚시인 견지낚시의 스포츠적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낚시에 대한 스포츠적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김동열(2008)은 레저·스포츠로서 낚시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국가·사회적 제요인을 연구하여 제시하였고, 김욱(2008)은 루어낚시 동호인들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민병진(2008)은 해양스포츠로서 한국과 일본의 갯바위낚시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윤철과 안병훈(2009)은 스포츠피싱 참가 정도가 중독 성향 및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고영주(2012)는 스포츠피싱 수업에서의 재미 특성과 수업만족 및 운동 지속의 관계 규명을 통해 재미특성이 높아질수록 수업만족이 높아지며, 이는 운동지속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낚시에 대한 스포츠적인 접근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물론 다수의 낚시 동호인들조차 스포츠피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스포츠피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특히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 낚시 선진국에서 스포츠피싱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바다 보트피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된 낚시는 최근에 레저 수준을 넘어 스포츠(생활체육)로서 발전하고 있다. 6백만(표 2 참조)에 이르는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규칙을 적용해 다른 사람과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피싱에 대한 관심도 최근 급격히 고조되는 추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피싱의 주류로 인식되고 있는 바다보트피싱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은 낚시를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은 스포츠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의 참여동기는 무엇인가?

넷째,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의 참여제약은 무엇인가?

다섯째, 동호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보트피싱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4.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연구 분야와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연구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몇 가지 제한점을 두었다.

- 첫째,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둘째, 낚시의 종류에 따라 스포츠피싱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 있다.
- 셋째, 동호인의 참여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날 수 있다.
- 넷째, 스포츠피싱 중에서도 바다보트피싱으로 제한하였다.
- 다섯째, 전문성을 고려해 연구 참여자를 보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5. 용어의 정의

- 조황(釣況): 낚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대상어인 물고기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낚이면 ‘조황이 좋다’고 하거나 ‘활황’이라고 표현한다.
- 조과(釣果): 낚시한 결과물, 즉 대상어를 얼마나 낚았느냐를 뜻한다. 좋고 나쁨을 따지는 조황과 달리 조과는 많다, 적다는 식으로 양을 따질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 조사(釣士): 낚시하는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 주로 낚시 동호인들끼리 서로를 칭할 때 사용한다.
- 시즌(Season): 단순히 계절을 뜻하기도 하지만 낚시에서는 대상어가 낚이는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황이 뛰어난 기간을 피크시즌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감성돔낚시 시즌은 사철이지만 피크 시즌은 4~6월과 10~12월이다.
- 대상어(對象魚): 낚시의 대상이 되는 물고기를 뜻한다.
- 포인트(Point): 문맥에 따라 낚시하는 자리라는 의미와 물고기가 걸려드는 지점(입질 지점)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출조(出釣): 낚시를 떠나는 행위. 주로 ‘출조하다’, ‘출조를 떠나다’ 라는 형태로 사용된다.

장비(裝備): 낚시대, 릴, 낚시줄 등 낚시에 사용되는 주요 용품.

채비(Lig): 원하는 낚시 장르와 노리는 대상어종에 맞게 낚시인이 직접 구상해서 만든 각종 낚시용품들의 전체 조합.



II. 이론적 배경

1. 낚시의 역사

패총에서 발견된 낚싯바늘은 적어도 5만여 년 전부터 있었다. 4천 년 전 이집트에서 6피트(ft)의 막대와 6피트의 실로 된 낚싯대 비슷한 것이 발견되었고, 릴(reel)과 비슷한 것은 1,500년 전부터 사용되었으며, ‘날개털 낚시[毛釣]’로 ‘은송어’를 낚은 예는 기원전 170년경, 그리스 북쪽에 있었다. 1650년대 영국인 아이작 윌튼(1593-1683)이 [조어대전(釣魚大典)]을 펴내자 낚시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릴은 처음 ‘윈치(winch)’라 불리었으며, 그 다음에 ‘휠(wheel)’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릴로 진화된 것이다. 낚싯줄로는 말총이 일찍이 사용되었으며, 서양에서 견사(絹絲)를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 비단이 건너가면서부터이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800년경부터 고급 견사가 있었다. 대는 나뭇가지에서 참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진보되었고, 철제·금속제를 거쳐 글라스 로드(glass rod) 시대로 들어갔다. 줄은 나일론사가 사용되었고, 릴의 정교도가 높아짐에 따라 캐스팅(casting)낚시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릴은 1840년 이래 미국에서 정교화되었고, 스나이더·미크 형제 등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1871년에 연어의 캐스팅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 이래, 해마다 다양한 경기가 시행되어 기술 향상을 이루었고 또한 낚시 콘테스트도 성행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낚시 경기 기관으로는 인터내셔널 게임 피셔어소시에이션(International Game Fish Association ; IGFA)이 있어 바다의 거대어(巨大魚) 48종류에 대한 세계 기록 공인을 관장하고 있다(이태신, 2011).

우리나라 낚시의 역사는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에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선양면(選陽面) 오산리에 있는 호숫가에서 발굴된 돌로 만든 낚싯바늘은 신석기인들이 사용하던 4,5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으로 한국에서도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낚시를 이용한 어로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헌상의 낚시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전하는 탈해 왕조의 신라 제4대왕 석탈해가 ‘낚시로 고기를 잡아 어머니를 공양하였다.’ 라는 글에 처음 나타나 있다. 그 후 고려 말기 이제현(李齊賢)의 어기만조(魚磯晩釣)를 비롯하여, 악장가사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어부가(漁父歌)와 이를 개작한 조선시대 이현보(李賢輔)의 어부가, 그 외에 이황(李滉), 이이(李珣), 박인로(朴仁老) 등이 남긴 시와 시조 가운데는 낚시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다. 그림으로는 조선 전기의 화가인 이승효(李崇孝)의 귀조도(歸釣圖), 이경윤(李慶胤)의 조도(釣圖), 이명욱(李明郁)의 어초문답도(漁樵問答圖) 등이 있다. 그런데 1670년(현종 11년)에 지은 남구만(南九萬)의 문집 약천집(藥泉集) 권28 조설(釣說)은 낚시이론서에 가까운 책으로서 낚싯대, 낚싯바늘, 찌, 미끼 등과 함께 낚시기법에 관한 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소개하였는데 당시에도 찌를 이용한 낚시 방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낚시는 우리 먼 조상들과 오랜 역사를 같이 하였다(국민생활체육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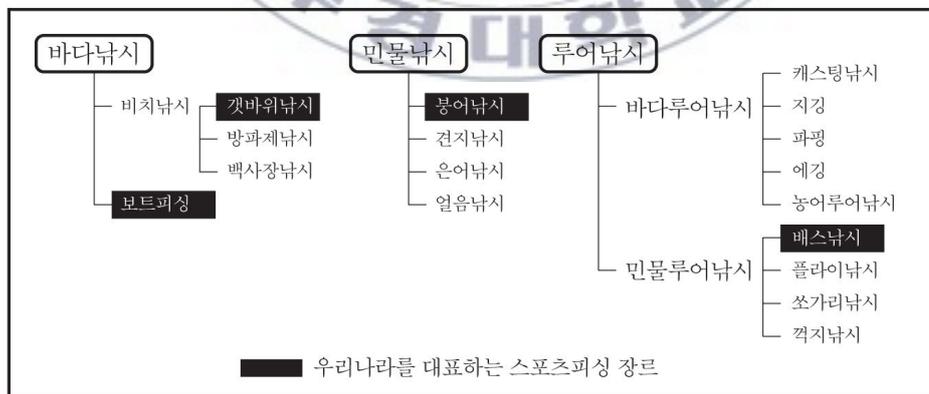
우리나라 낚시에 대한 고 문헌 중에 서유구가 목축, 사냥, 어로 및 물고기에 관해 펴낸 [전어지]와, 김려가 지금의 진해로 귀향을 가서 당시 어부들의 생활과 물고기 등을 기록한 [우해이어보],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어 그곳의 바다에 대해 기록한 [자산어보]는 우리나라 3대 어보로 알려져 있다(안국진, 2013).

2. 낚시의 개념

좁은 의미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금속재질로 만든 갈고리(낚싯바늘) 그 자체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낚시도구를 사용하여 상업 목적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저 차원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으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레저행위(해양수산부, 2005)다. 따라서 식용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은 어업(漁業)과는 완전히 다르다. 영어권에서도 상업적 목적의 ‘피싱(Fishing)’과 스포츠로서 ‘앵글링(Angling)’을 구분하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편 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업과 구분하기 위한 정책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놀다’라는 의미의 ‘유어(遊漁)’는,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김동열, 2008)으로 우리말에서 출처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체육학 용어로 적당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3. 낚시의 종류

<표 4> 낚시의 장르 구분



1) 민물낚시

강, 호수, 계류, 저수지, 보 등 내수면(담수)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장르의 총칭으로 전통적인 대상어종인 붕어를 비롯해 잉어, 떡붕어, 향어 등을 주 대상어종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붕어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가 민물낚시의 대표격으로 인식돼 왔다(김욱, 2008). 한편 민물낚시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는 견지낚시, 플라이낚시, 계류낚시 등은 낚시기법 상의 특이성 때문에 독자적인 장르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낚시인구 약 573만명 중에 민물낚시 인구는 전체의 약 66%에 해당하는 380만명으로 추정된다(해양수산부, 2005).

<표 5> 우리나라 낚시터 현황

구분	낚시가능 면적과 내용	비고	
낚시터	바다	전국 9,500개소로 추정 (낚시터: 도서, 연안인근 촌락, 방파제)	각 장소를 낚시터 각 1개소로 가정
	민물	전국 6,000개소로 추정, 유료낚시터 536개소 포함 (유료낚시터 비율 약 8.9%)	

자료: 해양수산부, 2005.

2) 바다낚시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장르의 총칭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半島) 국가로서, 동서남해가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바다낚시 장르가 꽃피울만한 천혜의 여건을 지니고 있다. 도서지역 갯바위, 방파제, 연안역, 어촌부락, 항구 등 바다를 끼고 있는 낚시터가 총 9,500여 개소에 이르고(해양수산부, 2005),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각종 대상어종들이 사철 모여든다.

3) 루어낚시

금속이나 합성수지로 작은 물고기 또는 갑각류 등을 흉내 내 만든 가짜미끼인 루어(Lure)를 이용하는 낚시 장르다. 채비가 간단하고 생미끼를 사용하지 않아 깔끔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젊은 층에 특히 인기가 높다. 대상어는 주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다(조홍식, 2009).

루어낚시는 민물루어낚시와 바다루어낚시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민물루어낚시를 대표하는 배스낚시의 경우 동호인층이 두터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스포츠피싱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급격한 동호인 증가세를 기록 중인 바다루어낚시는 해외 스포츠피싱 대상어로 꼽히는 대형 회유성 어종 외에도 볼락, 우럭 등 소형 정착성 어종과 오징어, 꼴뚜기, 주꾸미 등 연체동물까지 대상어로 인기를 끌고 있다.

4. 바다낚시의 종류

1) 갯바위낚시

해안가에 형성된 갯바위를 무대로 즐기는 낚시형태다. 갯바위 주변은 비교적 물가로부터 급하게 깊어지는 부분이 많고 조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많은 물고기가 모이는 장소다. 감성돔, 벵에돔, 참돔, 돌돔 등 바다낚시 인기 대상어가 모두 낚이는 장소이자 대물을 겨냥하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기도 하다(예조원, 2011). 우리나라는 낚시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다 해안선이 길고 도서가 많은 특성상 갯바위낚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바다에서 진행되는 게임피싱 대부분이 갯바위낚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방파제낚시

항구 주변,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에서 이루어지는 낚시이다. 주로 개체의 크기가 작은 전갱이, 고등어, 불락, 학공치 등을 낚시 대상으로 한다(서동찬, 1998). 방파제낚시는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가를 보내는 레저 차원의 낚시로 동호인 수가 가장 많다.

3)백사장낚시

해저가 모래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즐기는 낚시를 말한다. 주로 해안의 해수욕장과 같은 모래사장에서 이뤄진다. 채비를 수평선으로 날려 보내는 호쾌함이 재미를 더하는 요소이다. 외국의 경우 동호인 수가 무척 많아 조과뿐 아니라 원투 거리를 겨루는 경기가 치러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멸, 가자미, 노래미 등이 주 대상어다(예조원, 2011).

4)보트피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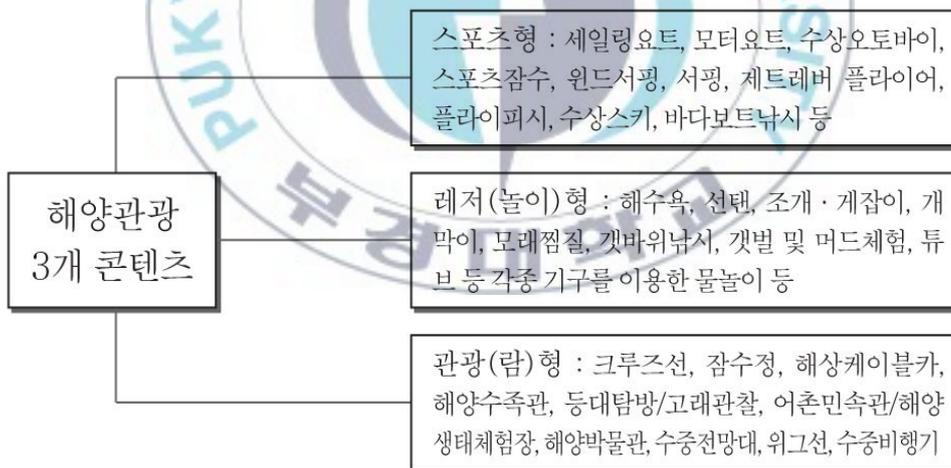
낚싯배나 보트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 배 위에서 즐기는 낚시이다. 항구 인근의 내해 포인트부터 멀리 공해상까지 나가는 포인트까지 출조 권역이 상당히 넓다. 우럭, 대구, 불락, 열기, 가자미, 보리멸, 갈치, 부시리 등 온갖 어종을 풍성하게 낚을 수 있는데, 초보자들 보다는 낚시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들이 더 선호한다(서동찬, 1998).

이 연구에서 보트피싱은 바다에서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즐기는 낚시를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피싱으로서 갯바위낚시와 민물 배스낚시가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국, 유럽 등 바다보트피싱을 위주로 하

는 외국의 낚시 문화가 보급되면서 국내에서도 바다보트피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활동성이 중요시되는 루어낚시와 선상낚시가 결합돼 봄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바다보트피싱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강과 호수에는 소형 보트가 눈에 띄게 늘었고, 최근에는 바다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트피싱 동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트피싱 역사는 배스낚시 토너먼트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낚시는 한 자리에서 기다리는 정적인 것이었지만, 보트피싱이 등장한 이후에는 빠른 장비를 사용해 빠른 시간 안에 대상어를 찾아내고 낚아내는 매우 동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한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윤용우, 2012).

<표 6> 해양관광 3개 콘텐츠 분류표



출처 : 지삼업(2012), 해양 관광론 플러스, 서울 : 대경북스, 123.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해양레저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바다보트피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의 검색어가 된 지는 이미 오래고, 과거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을 이제는 동서남해 전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만큼 바다보트피싱에 뛰어드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바다낚시 & SEA LURE, 2012).

지삼엽(2012)은 해양스포츠를 바다·강·호수 등 자연의 물에서 동력·무동력·피건인 등의 각종 장비(보트 등)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스포츠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바다, 강, 호수 등지에서 보트를 타고 대상어를 낚는 행위를 통해 유희를 얻거나, 한 발 더 나아가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기량을 겨루기도 하는 바다보트피싱은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해양스포츠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삼엽(2012)은 또 국내 연안해의 경우, 지금껏 비치낚시에 속하는 갯바위낚시가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내부에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는 보트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가족 중심의 선진 해양놀이문화의 정립 차원에서 바다보트낚시의 육성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7> 바다낚시 주요 대상어 및 시즌

대상어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감성돔		동해		남해		서해						
벵에돔				남해 영남권								
참돔			남해		서해							
돌돔				남해	서해							
농어			동해	서해	남해							
볼락						남해 동해				남해 동해		
열기		서해			남해 동해					남해 동해		서해
우럭			서해		동해					남해		
부시리 방어						남해 서해		동해				
갈치		만바다 배낚시				남해		서해 동해				
고등어 전갱이						남해			동해			
학공치			남해	서해		동해						동해
넙치				서해	남해 동해							
도다리 (가자미)	남해	동해	서해									
대구					동해	서해						
삼치						남해 서해 동해						
무늬오징어				남해	동해							

5. 스포츠피싱(Sport Fishing)의 개념

현대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과 여가 시간의 확대에 힘입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동시에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 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과거 여가에 개인적으로 즐기는 레저 수준에 머물렀던 낚시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낚시 전파, 각종 경기단체들의 생성과 적극적인 역할, 경기낚시(게임피싱)의 성행, 낚시관련 언론사 특히 방송사(FTV 한국낚시채널, FS-TV)의 역할에 기대어 스포츠피싱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포츠피싱의 개념 정의에 있어 강조되는 것은 자발적인 ‘도전’ 과 ‘경쟁’ 이다. 낚시는 물고기를 탐색하고 낚기 위한 도전과 이를 통한 동료들과의 어획 경쟁, 그리고 때로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고 넓은 지역을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스포츠피싱(Sport Fish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5).

낚시를 통해 어획물을 획득하거나 금전적 가치를 얻기보다는 민물, 또는 바다에서 어류를 찾아내고 낚기 위해 도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목표 어종을 두고 낚시인들끼리 경쟁적인 어획을 행하고, 낚은 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를 실천하기도 하고, 이동범위가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장비가 요구되는 것을 스포츠피싱이라고 한다(김기철, 2008).

해외에서는 전문선박과 장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없거나 희소한 초대형 어종을 찾아내고 이를 걸어서 체력적인 대결을 하거나, 인조미끼를 물고기가 유혹 당하게끔 교묘하게 돌려주어(Lure 혹은 루어낚시라고 한다) 어식성(魚食性) 어종을 낚기 위한 탐색과 기술의 구사, 그리고 경쟁하는 일련의 낚시행위를 스포츠피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1990년대 중반 배스(Bass)

<표 8> 여가와 낚시의 개념 및 정의의 상관 모형



출처 : 김동열(2008), 여가스포츠피싱 발전을 위한 제요인 연구, 17, 일부 용어 및 개념도 재구성.

등 루어낚시의 보급과 함께 동호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낚시와 구분하기 위해 낚시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스포츠피싱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낚시기법의 발달과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루어낚시는 물론이고 바다낚시나 민물낚시를 포함하여 경기성이 가미된 낚시장르를 통칭해 스포츠피싱이라고 부르고 있다(김동열, 2008).



Ⅲ. 연구방법

1. 질적 연구의 적합성

<표 9>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비교

비교내용	양적연구	질적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인들간의 관계 규명 • 기존 이론의 검증 • 연구 결과의 일반화 •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자의 관점 이해 • 이론의 개발 • 해석 • 상황성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을 세우고 검증 • 변인에 대한 조작과 통제 • 제작된 도구의 사용 • 수량화 지향 • 연역적 문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이나 이론을 자료를 통해 발견 • 변인에 대한 묘사 또는 기술 • 연구자가 도구와 같은 역할 • 언어적 표현 지향 • 귀납적 문제 탐색
연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설계와 같이 정형적 • 가설의 입증용 목적 • 연구시작전 설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형적 • 연구참여자의 관점을 이해, 해석 • 설계의 즉각적, 점진적 결정
표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률적 표집 • 집단을 구성(다수의 참여자) • 무선표집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목적적 표집 • 소수의 참여자 • 비대표성
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수량적 분석 • 자료수집이 모두 끝난 뒤 분석 • 객관적, 통계적 보고서 작성 • 표나 그래프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언어적 분석 • 연구과정 중에도 지속적 자료분석 • 해석적, 이야기체의 보고서

출처: 김병준 · 오수학(2011), 체육학 연구방법, 서울: 레인보우북스, 158.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는 과정이 중시되고, 연구 참여자가 특수하여 집단 구성이 어렵고, 연구 주제와 관계된 배경 이론이나 선행이론이 부족할 때 적합하다. 또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귀납적 추리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얻는다. 질적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서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김병준, 2011).

최근 해양스포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요인에 관한 양적 연구와 해양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문헌 고찰이 많았고, 해양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나 동호인들이 느끼게 되는 인식,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해양스포츠 대중화 저해 요인 등에 대한 질적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이근모 외, 2009).

바다보트피싱은 근래 들어서야 해양스포츠의 한 갈래로 주목받기 시작해, 선행 연구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동호인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 집단 구성이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바다보트피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부산, 진해, 거제 등지에 거주하는 바다보트피싱 동호인 5명을 유목적표집법에 의해 선정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나 단체 소속 회원들을 배제하고 동호인을 선정한 이유는, 직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다보트피싱을 스포츠로서 즐기므로 스포츠피싱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식 없는 인터뷰에 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보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낚시 경력 10년 이상, 연간 바다보트피싱 출조 횟수 20회 이상이다. 스포츠피싱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지닌 사람들 중 연구자와 유대관계 형성(윤택림, 2004)이 쉬운 사람들을 선정해 심도 있는 면담을 나누고자 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고 수입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바다보트피싱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동호인으로 활동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했다. 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0>과 같으며, 연구의 윤리성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성명은 가명으로 기재하였다.

<표 10> 연구 참여자의 특성

성명	거주 지역	나이	보트피싱 경력	직업
김태수	거제	53세	11년	자영업
김종우	부산	49세	10년	전문직
류철민	거제	52세	13년	자영업
박민석	진해	64세	15년	은퇴
최동호	부산	55세	13년	자영업

3.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문헌연구, 심층면담, 서술적 설문조사,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문헌연구는 낚시와 관련된 시, 수필, 그림 등 고문헌과 스포츠피싱 관련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가장 편한 장소와 시간에 진행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 내용을 녹취해 자료화 할 것이라는 데 사전 동의를 구했다. 면담 방식은 비표준화 인터뷰(Patton, 2002)를 사용했다. 면담 횟수와 시간은 개인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

를 두었는데 1~2회에 걸쳐 30분~1시간 가량 진행됐다. 녹취는 SHV-E210K에 내장된 디지털 레코더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바다보트피싱을 시작하게 된 동기, 바다보트피싱을 하면서 겪는 문제점, 바다보트피싱 활성화 방안이다.

서술적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자가 질문지를 읽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답변을 서술하도록 해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설문지는 심층면담을 마친 후에 연구 참여자에게 설문지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배포되었으며, 진지한 태도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 현장에 완전관찰자로 참여해 실시했다. 면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발견하기 위해(노용구, 이철원, 2003) 연구자는 부산 오륙도와 경남 홍도 해상에서 2회에 걸쳐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의 출조 현장에 참여해 관찰을 실시했다. 또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상황이나 일련의 행위들을 실감하기 위해 바다보트피싱을 직접 체험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참여관찰 노트를 작성했다.

4. 자료 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음성 정보를 문자 정보로 그대로 옮겨(전사, transcription) 문서화된 자료로 만들었다. 이후 문서화된 자료를 부호화(coding)한 후 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쳤다(김영천, 2006). 부호화는 문서 자료의 묘사적 단어나 범주를 표시하는 과정이다(허진영, 안혜진, 2010). 연구자는 부호화를 통해 자료의 양을 감소시키고 단순화해 분석대상으로서 가치를 판단하고 구

분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내용을 개념화, 주제화했고 최초의 문서화된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 작업 및 오류를 검증했다.

5. 신뢰도

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층면담뿐 아니라 서술적 설문조사, 현장 참여관찰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 방법(삼각검증법)을 사용했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편견의 개입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개념화, 범주화된 자료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에 의한 확인은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연구 결과가 연구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의 의도에 따라 도출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이근모, 2012). 또한 연구 과정에서 낚시전문잡지 발행인, 낚시 관련 연구기관 대표, 스포츠피싱 전공 석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연구 결과의 해석이 올바른지 검증했다.

IV. 연구 결과

1. 바다보트피싱 성장 전망

1) 지속적인 동호인 증가

연구 참여자들은 바다보트피싱이 갈수록 인기를 얻으며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증대와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의 확대, 새로운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동호인 수가 증가하고, 덩달아 바다보트피싱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점차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인 증가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갯바위낚시 등 다른 장르의 낚시를 즐기던 동호인들이 바다보트피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사실이다.

앞으로 보트피싱은 많이 활성화되겠지요. 기반 시설만 받쳐주면 (갯바위낚시 동호인들이) 거의 보트낚시로 돌아서지 않겠나 싶어요. 그동안에도 (보트피싱)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김태수(53세, 거제).**

주5일근무제, 동호회 활성화 등으로 레저·스포츠 관심이 높아지고 등산, 낚시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처럼 보트피싱 동호인들도 점점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최동호(55세, 부산).**

사실 보트피싱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년 전후반 정도밖에 안됐어요. 역사가 짧아요. 주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여가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다양한 취미를 즐기다 보니 보트피싱에 관심을 갖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포

털 사이트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보트피싱 동호회가 적어도 3개씩은 있고, 이들 동호회를 통해 약 2만명 정도가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요즘은 다양성과 선택의 폭이 커져 보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격도 많이 합리화돼 있고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누구나 보트에 관심을 가질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죠 **김종우(49세, 부산)**.

2) 낚시 동호인은 잠재적인 보트 구매자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낚시를 목적으로 보트를 구입했다. 또 다른 보트 소유자 대부분이 현재 낚시를 즐기고 있거나 장래에 낚시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트를 원하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드라이브 목적으로 보트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보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낚시에 관심이 있어요. 드라이빙도 한 두 번이지. 나중에는 드라이빙도 낚시를 목적으로 한 드라이빙이 되지요. (보트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주목적은 낚시지. 나가서 고기 잡아 오고 나눠 먹기도 하고... **박민석(64세, 진해)**.

대개 낚시를 목적으로 보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 삼아 보트를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낚시 동호인들이 보트피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열 명 중에 한 두 명 정도만 아니고 나머지는 거의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보팅’ ‘보팅’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보트피싱’ 이 맞죠. 결국 낚시인들이 잠재적인 보트의 구매자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우(49세, 부산)**.

2. 바다보트피싱 참여 동기

1) 스포츠로서 매력

과거 단순한 레저로 인식됐던 낚시는 이제 스포츠(생활체육)로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특히 바다보트피싱은 수많은 낚시 장르 중에서도 스포츠적인 매력이 가장 뛰어나다. 스포츠피싱이 태동한 미국에서는 바다보트피싱이 곧 스포츠피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동열, 2008). 이 연구 참여자들 역시 바다보트피싱 참여 동기로서 스포츠성을 비중 있게 꼽았다.

보트피싱은 보트를 타고 나름 스피드도 즐길 수 있고 낚시도 하니까 스포츠도 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동호(55세, 부산)**.

낚시는 대체로 스포츠라고 봐야죠. 피싱은 갯바위 피싱도 있고 선상피싱도 있지만 보트피싱이 가장 스포츠적이라고 해야겠지요. 보트피싱은 피싱을 하기 위해 보트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갯바위는 다양성이 없어요. 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어종을 만나 볼 수 있고, 다양한 낚시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또 보트피싱을 하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릴과 재미가 있어요. 보트(피싱)를 한 번 접하게 되면 다른 것에 취미를 못 느끼게 돼요. 낚시의 재미와 바다를 향배하는 기분은... 그 희열은 말도 못 합니다. 그런 게 보트피싱의 매력인 거죠 **김종우(49세, 부산)**.

Paul Quinnett(2006)는 낚시꾼은 미스터리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수면 아래, 깊은 호수 속, 또는 바다 속 어딘가에 있음직한 것들을 사랑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 억제할 수 없는 호기심이자 모험이다. 미

지의 영역에 대한 열망과 도전, 거기에 바로 낚시의 마력이 있다고 했다.

2) 조과 향상

연구 참여자들은 조과를 높이기 위해 바다보트피싱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는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낚는 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스포츠인 만큼 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물고기를 낚아서 먹는 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물고기를 낚아 손맛만 즐기고 다시 놓아주는 행위)’가 일반화된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조과를 높이는 데는 다른 장르보다 보트피싱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보트하기 전에는 갯바위에서 참돔부터 감성돔, 벵에돔 이런 거를 주로 했는데 앞에서 선상(낚시) 배들이 잡는 걸 보면 우리가 사이즈도 좀 작고 물량(마릿수)도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배낚시(보트피싱)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최동호(55세, 부산)**.

갯바위낚시와 보트피싱 조과 차이는 거의 열 배 이상 난다고 봐야지. 감성돔낚시를 할 때 갯바위에서 20마리 이상 낚는 건 거의 일생에 몇 번이지만, 배(보트) 타고 나가면 거의 보장이 되니까... **김태수(53세, 거제)**.

3) 자유로움과 다양성

다른 스포츠피싱 장르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점도 바다보트피싱 참여동기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를 무대로 하는 스포츠피싱 장르 가운데 동호인 수가 가장 많은 갯바위낚시의 경우, 낚싯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 갯바위에서 주로 이뤄진다. 따라서 기상 조건, 포

인트, 물때 등 여러 변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바다보트피싱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자유롭다. 또한 계절에 따라 많은 대상어를 공략할 수 있고 선상찌낚시, 루어낚시, 외줄낚시 등 여러 낚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성 면에서도 돋보인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바다보트피싱 참여 동기로 언급했다.

갯바위낚시를 하게 되면 (낚싯배를 타기 위해)새벽 2~3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아니면 하루 전날 갯바위에 들어가 추운데 떨면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싫었으니까... 보트를 타고 가면 언제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고, 물때에 구애 안 받고 전천후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지... 대상어종은 보트낚시다 보니까 자기기 원하는 어종은 아무거나 골라서 낚을 수 있지. 다양하죠 상당히 다양하죠. 바다루어낚시 같은 경우는 거의 보트가 있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김태수(53세, 거제).**

유어선을 타고 갯바위에 내리려면 새벽 3~4시에 내려야 하는데 좋은 포인트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포인트 다툼도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렵게 (갯바위에) 내린다고 해도 걸어서 옆 포인트로 이동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잘되든 안 되든 철수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반면 보트피싱은 포인트 이동이 쉬우니까 안 되면 자리를 옮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략할 수 있는 어종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동호(55세, 부산).**

선상낚시와 보트피싱은 많이 다르죠. 선상낚시는 정해진 패턴대로 움직이지만 마이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또 다양한 대상어를 자기 입맛대로 공략할 수 있고, 선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자유로움... 보트피싱을 하다보면 특정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계절별로 그 철에 나오는 대상어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사계절 낚시가 가능합니다 **김종우(49세, 부산).**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바다보트피싱 참여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특성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여러 낚시 장르 중에서도 유독 갯바위 낚시를 즐기던 동호인들이 바다보트피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보트 장비와 성능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되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다보트피싱은 성장하는 반면 그동안 주류를 형성했던 갯바위낚시는 점차 퇴조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후자는 바다보트피싱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처음엔 갯바위낚시를 주로 하다가 고무보트를 구입해 가지고 7~8년 타고 다니며 선상홀림낚시로 내만권을 주로 다니다가 (차츰) 멀리 나가게 됐죠. 멀리 나가기 위해 선외기형 보트로 바꾸었지. 일종의 레저보트로 봐야지 **김태수(53세, 거제).**

민물낚시를 먼저 시작했죠. 바다는 민물을 먼저 하다가 16~17년 전에 인천에서 우럭배낚시를 접하면서 입문하게 된거죠. 선상낚시를 거의 매주 다녔는데 서해안에서 고무보트로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고무보트를 하나 사서 보트피싱에 입문하게 된거죠 **김종우(49세, 부산).**

나는 처음엔 선외기를 16피트에 50마력 보트부터 구입해가지고 나중엔 23피트에 150마력으로... 보트도 사람 욕심이 있다 보니까 (보트피싱)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지 **김태수(53세, 거제).**

처음에는 근해에서만 활동하다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점점 멀리 나가고 싶고 저 멀리 보이는 섬으로도 가고 싶고... 그래서 보트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380(길이

3.8m 고무보트)에 면허를 취득했으니까 엔진도 30마력 없애가지고 이제 멀리도 나가보고 그러면서 근해에서는 잡을 수 있는 어종이 한계가 있어 흥미도 없어지고 했는데 보트가 커지다 보니까 원거리로 출조를 나가다보니까 대상어도 다양해지고 흥미도 많이 느꼈고... **김종우(49세, 부산).**

처음에 배가 작운데 인원이 늘다보면 짐도 많이 못 싣고 공간이 부족해 긴 낚시대를 다루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고무보트에서 발전한 게 콤비보트, 보트는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고무보트부터 시작해서 콤비로, 콤비에서 FRP로, FRP에서 하우스보트로...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최동호(55세, 부산).**

3. 바다보트피싱 참여제약

1) 슬로프, 계류장 등 시설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스포츠피싱 참여 제약 요소로 제반 시설 부족을 1순위로 꼽았다.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을 정도로 문제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트를 진수하는데 필요한 슬로프와 보트 계류 공간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애로 사항은 보트를 런칭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슬로프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언론에는 해양강국이라고 떠들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양스포츠 쪽으로 기반시설이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항구 시설 같은 것도 어민들 위주로 편중이 돼 있고, 또 어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레저(여가스포츠)시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스포츠 지원이니 해서 마리나 시설도 만들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특정 사람들에게 국한되

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중간 생략) ... 소형은 트레일러에 얹은 채로 주차장 같은 곳에 (육상)보관할 수 있지만, 큰 보트는 마리나 같은 시설이 갖춰진 특정 계류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류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 잡기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만큼 보트 계류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항에다 계류를 하는데 그것도 특정 연고가 있다든지 인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죠 **김종우(49세, 부산)**.

거제에는 보트를 내리는 슬로프 시설이 구조라, 능포, 다대... 몇 군데 불과하다. 그 것마저도 외지에서 보트를 가져 오면 활용을 못하게끔 아예 막아놓는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잘 하지 않으니까 (시설이) 노후가 되거나 파손이 돼도 개보수를 안 해. 거의 활용을 못 한다고 봐야 한다. 고무보트 경우에는 (슬로프 시설이 없어도) 일반 방파제에서 내릴 수 있거든. 근데 그 외 보트들은 슬로프 없으면 오르내리지 못하고 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크레인 한 번 사용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좀 그렇지 **류철민(52세, 거제)**.

슬로프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 쓰는 보트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처럼 물에 띄워놔야 하는 보트들은 접안(계류)시설이 제대로 없어 어렵다는 거지. 특히 태풍 오면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장 큰 문제가 태풍 올 때야. 태풍 오면 보트를 들어 올려야 하는데 참 그것도 마땅치 않고. 육상 크레인을 불러 들어 올려야 하고, 아님 어촌 마을에 있는 크레인을 써야지 **김태수(53세, 거제)**.

콤비같은 20피트 이하 소형 보트들은 트레일러를 이용하게 되는데 슬로베이(슬로프)가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부산, 경남권을 무대 삼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트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약이 있고, 그 다음은 나중에 보트가 커지고 나면 계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연고지가 있다든지 어촌계에 누구를 안다던지 해서 보트를 계류할 공간이 있어야 하고... **최동호(55세, 부산)**.

2) 경제적 부담

보트를 이용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낚시 장르를 즐기는 바다보트피싱은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든다. 가장 비중이 큰 보트 구입비용은 물론 유지 및 보수, 운항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여기에 각종 낚시장비를 구입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추가된다. 이러한 비용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바다보트피싱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바다보트피싱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트피싱을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지. 경제적으로 참 힘든 게 국내에서는 (보트가) 생산되는 거 거의 없거든요. 엔진같은 거 일본에서 생산된 거 중고로 구입해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많이 나고...싼 거 찾다보면 중국제인데 (품질이 떨어져) 그건 또 못 쓰겠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 보트도 이제야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결음마 수준이고... 특히 엔진이 문제인데, 고장이라면 주로 엔진문제인데 아무리 작은 고장이라도 일단 고장났다 하면 기본 몇 십 만원은 들어가니까... 설사 고장이 안 나도 점검을 위한 출장비에다 (엔진의) 탈부착비만 몇 십(만원) 드니까 툭 하면 돈 백 그냥 날아가더라고 **김태수(53세, 거제).**

피싱보트는 중고 제품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신제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0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저(보트피싱) 인구들이 접하기 힘든 물건들이고... 실제 거래가 어려워요. (피싱보트의 경우) 1천만원~2천만원대 제품들이 위주라고 보면 됩니다. 고무보트부터 시작해 모터보트로 업그레이드 하다보면 처음에는 3백만원~5백만원 정도는 쉽게 접하지만 나중에 1천만원이 넘가 가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중고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국산 새 보트를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지요 **김종우(49세, 부산).**

보트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름에 홍합이나 썩(패류)이 (선체 밑에) 붙고 겨울에는 파래 같은 것이 많이 붙어 6개월에 한 번씩은 도크에 올려서 청소를 하고 페인트도 칠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대충 저희 보트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포함해서 30~40만원 정도 들거든요. 또 레저보트는 어선과 달리 면세유 사용이 안되다 보니까 엔진 성능이 떨어지거나 보트 크기에 비해 엔진이 작다든지 하면 엔진오일 포함해서 가까운데도 (기름이) 서말은 들고 비용이 13~15만원이 들다 보니까... 혼자 가게 되면 부담이 되고 5~6명 정도가 어울려서 2~3만원씩 나눠서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호(55세, 부산)**.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피싱보트와 엔진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결국 바다보트피싱 참여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트와 주요 장비의 국산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 ‘바다보트피싱 발전 방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어민과의 마찰

연구 참여자들은 바다보트피싱 출항지인 항포구에서 현지 어민들과 수시로 마찰이 빚어지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앞서 살펴본 시설부족이나 경제적 부담보다 오히려 더 크고 현실적인 참여제약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마찰의 유형은 직접적인 다툼, 시설이용 방해, 계류 불허, 낚시 방해, 금전적 보상 요구 등 여러 가지 행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 슬로프 시설을 펜스나 그물 등으로 막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싱보트의 어항 내 계류를 불허하는 것을 가장 큰 제약으로 꼽았다. 또한 행정 당국의 어민 위주 정책 시행과 어촌계의 폐쇄성이 마찰의 원인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분들은 (보트피싱 동호인들을) 아주 안 좋은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많지. 예전에 고무보트 타고 다닐 때는 자기네들 항로에 거추장스럽다고 기적을 뺑뺑 올리고 낚시하고 있으면 일부러 옆으로 지나가면서 파도를 일으켜 위험하게 만들고 막 그러더라니까 **김태수(53세, 거제).**

소규모 어항들은 문제가 많지.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 말고는 외지인이 보트를 계류시키기 어렵다. 그것도 시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민들이) 막아 놓기도 하고 결국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힘들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관리비를 요구한다던지 이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꺼려한다는 거지 **류철민(52세, 거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는 계류 문제지. 어촌이나 이런데 보트를 대려면 마을 사람 아니면 못 대게 하고 말 잘해서 자리 얻어 대다가도 어민들이 자기 배 댄다고 하면 쫓겨나야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돈 100만원 정도 내놓으라는 데도 있고, 돈을 내도 눈치는 봐야 하고, 거기다 제대로 된 레저보트 접안 시설이 거의 없다보니...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김태수(53세, 거제).**

사실 우리나라 각 항구마다 슬로프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사용을 못하게끔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물이나 펜스를 쳐서 접근을 차단하는 거죠. 어항 시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생활체육인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태까지 어민들이 항을 관리하다시피 해왔고 정책들이 어민들 위주이다 보니, 그들은 생계가 목적이고 우리는 생활체육이라는 이유로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그런 시설만 제대로 개방을 해도... **김종우(49세, 부산).**

슬로프 같은 거도 국민 세금 갖고 한 건데, 그게 점점 악화되고 있어. 마산에 ○
○이고 ○○이고 거의 막아버렸어요. 어촌계에서 개인 그물을 놓아 버리고. ○○
같은 경우는 배 올려서 수리하는 (크레인)업체가 (슬로프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태라. 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야기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그때 뿐이지. 그게
개인 것이 아닙니다 **박민석(64세, 진해).**

다행히 저는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어촌계 발전 기금 같은 거 없이... (계류 중
이다.) 그런데 배를 대 놓는데 90% 이상이 어선이고 레저보트는 10% 미만이다 보
니 모든 것이 어촌계 소속 어선 위주이고,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피항
하는 순서라든지 그런 것도 일단은 어촌계가 우선이다. 실제로 피항이나 정박 중
에 불이익을 당해 보트에 크랙(파손)이 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시설이
미흡해 다른 곳으로 피항을 가야하는 것도 불편한 점이다 **최동호(55세, 부산).**

지역 어민들과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은 같은 공간, 즉 출항지와 바다를 공
유하고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로 공생을 통해
원원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마찰과 반목을 계속한다면 양자 모두에게 손실
이다. 아울러 바다보트피싱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의 자
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몰상식한 보팅 동호인들이나 낚시인들 이야기인데 크고 작은 쓰레기들을
아무렇게나 버리니까 깨끗한 마을이 더럽혀지게 되고 자기네(어촌마을 주민들)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가 없지요. 결국에는 당신네(보트피싱 동호인)들 오지마라
이런 식이 되고, 결국 있던 슬로프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최동호(55세, 부산).**

어민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음, 안전 운항 등 낚시인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해요. 항을 같이 쓰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하는데... **김종우(49세, 부산).**

4) 관계기관의 인식 부족

연구 결과 해양스포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과 해당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 소극적인 태도가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트의 등록 및 유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유관 기관의 조치가 불합리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청에 보트 등록문제로 갔더니만 담당 공무원이 너무 강압적으로, 말하는 투가 레저보트인데 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마을에 대느냐고 오히려 뭐라 하더라니깐. 꼭 꾸지람하듯이... 억수로 기분이 상했었는데... 내가 참고 말았는데... 공무원들 생각 자체가 그런 식이라더니깐. 담당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깐 할 말이 없더라니깐. 같은 지역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민들은 다른 지역 가서 차를 대지 말아야지... **김태수(53세, 거제).**

해결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안전문제도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깐. 제 같은 경우 트레일러를 가지고 육상 계류를 하는데 주차위반 딱지를 끊었더라구.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연히 차량으로 등록돼 있고 세금을 내는데 왜 단속을 하나 그랬더니 왜 보트가 바다에 있어야지 여기 있냐길래 내가 허가증을 봐라 계류지가 여기(육상)로 돼 있다. 콤비보트라서 트레일러를 쓰거든. 결국 화물차에 짐 실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건데 등록증을 보여 줬더니... (구청 직원이)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이래서는 안 되죠. 뭘 제대로 알고 나와서 이야기해라 그랬지 뭐. 이 법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몰라요 **박민석(64세, 진해).**

4. 바다보트피싱 활성화 방안

1) 마리나 등 계류시설 확충

연구 참여자들은 바다보트피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트를 보관하고 진수 하는데 필수적인 계류장, 슬로프 등 기반 시설을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스포츠 전진기지로 불리는 마리나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을 수용하려면 국지적인 마리나 건립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피싱보트의 규격을 고려해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건으로는 아직 보트피싱을 즐기기에는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제야 마리나 짓는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한 거지 아직 지어 놓은 건 아니지. 해운대(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데 지어 놓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거지, 전국적인 것은 아니잖아 **김태수(53세, 거제).**

안 할 말로 마산에 마리나를 지었다, 그럼 진해 사람이 마산까지 와야 하는데... 왔다 갔다 불편한데 별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한 번에 다 지으면 될까, 마산도 짓고 진해도 짓고, 요즘 마산 ○○에 마이 몰리니까 ○○도 짓고, 또 고성도 짓고 뭐 이러면 몰라도 예를 들어 경남에서 마산에 하나 밖에 없다면 그럼 다른 지역에서 차를 타고 와야 해요. 그럼 귀찮아서 안 와요. 같은 지역이라도 낚시터까지 멀면 유류비를 걱정해야 할 판인데. 그렇다고 지역마다 다 지으려면 어느 세월에 될 거예요 **박민석(64세, 진해).**

너무 레저용 보트가 큰 보트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트피싱이라고 해서 20피트, 30피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작은 보트들이 더 많습니다.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도 일반 해양스포츠 동호인들이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고 제약이 있어요. ...(중간 생략) ...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레저인들이 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책적으로 항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항 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트피싱은 크게 발전할 겁니다 **김종우(49세, 부산)**.

연구 참여자들은 마리나 등 계류 시설의 입지를 따질 때 주요 낚시터와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계류시설이 조황이 좋고 여건이 뛰어난 낚시터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이 더 많이 찾게 될 거란 의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이 적극적인 보트의 구매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바다보트피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낚시 시즌도 마리나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트피싱이란 게 결국 낚시를 위주로 하는 건데 낚시를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대상어종이 제일 가까운 곳에 보트를 대놔야 편리하지. 낙동강 하구 쪽에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고 싶는데 해운대에 보트를 계류시켜 놓으면 기름 낭비가 얼마나 심하겠나 **김태수(53세, 거제)**.

출조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다대포권에 있다보니까 자주 (출조) 가는 게 다대포 나무섬, 형제섬, 멀게는 외섬(남형제섬)까지, 그리고 거가대교 아래, 동쪽으로 생도까지 가는데 해운대(수영 요트경기장)에서 오게 되면 기름값 등 경비가 1.5배~2배가 들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낚시할 시간도 줄어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에서는 오류도나 생도 정도가 고작이예요. 낚시터까지 접근성도 계류지 선정에 아주 중요합니다 **최동호(55세, 부산).**

시즌이 문제죠. 각 철마다 다양한 대상어종, 예를 들어 봄에는 도다리, 여름에는 무늬오징어, 가을에는 감성돔, 겨울에는 참돔 뭐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잘 나오는 어종이 틀리기 때문에 시즌마다 배 띄우는 장소도 틀려지지요 **최동호(55세, 부산).**

낚시용 보트의 어항 내 정박과 관련해 지역 어민들과 마찰이 잦은 상황에서, 보트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은,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큰 계류 공간과 그로 인한 비용과다는 주로 중소형 보트를 소유한 동호인들에게 부담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계류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나 비용이 문제다. 내가 볼 때는 23피트 정도, 일반 동호인들이 낚시용으로 좀 크다고 보는 보트가 10만원대까지는 내려가야 하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 물론 뭐 그보다 비싸다고 해도 대야 할 상황이라면 대야하는데 솔직히 큰 부담이거든. 1년이면 수백만원인데... **김태수(53세, 거제).**

마리나 계류비도 보통 ‘1년에 얼마’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한 군데 있어야 하는데 (시즌을 고려하면) 못 있지. 다달이 계약을 하면 모를까. 자동차 주차요금처럼 다달이 얼마씩 내면 옮겨 다니며 낚시를 할 수 있지. 마리나와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서만 낚시하겠다는 사람 외에는 마리나에 대기 어렵지 **박민석(64세, 진해).**

2) 보트의 국산화

연구 결과 피싱보트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트 종류와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2천~5천만원대 제품을 주로 구입했다. 또한 전원이 외국산 중고보트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성능과 안전성, 낚시보트로서의 적합성 등 여러 면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낚시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착한’ 가격의 국산 보트 개발 및 생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산 보트는 전무하다고 봐야죠. 국내 레저보트 관련 업체에서도 수요가 없다보니 타산이 안 맞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동안은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산화가 안됐어요. 대형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레저용 보트는 중국보다 못합니다 **김중우(49세, 부산)**.

일본이나 미국의 중고 보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트는 2천5백 정도에 구입했는데 같은 사양을 새 걸로 사게 되면 1억이 넘게 들어요. 일본의 자료를 보면 FRP의 경우 보트 수명을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연한이 지난 폐선 수준의 보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 보트 비용이 1천만원이라면 운송비, 탁송료, 통관료 등 개인적인 경로를 거쳐 컨테이너에 담아가져오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4~5천만원이 치게 됩니다 **최동호(55세, 부산)**.

연구 참여자들은 중고 수입 보트 구매와 관련해 거래의 불투명성, 가격 책정의 불합리성,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보트피싱)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트들이 전부다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온 폐선들입니다. 20~30년 된 것들. 일본에서는 거의 버려진 것들을 국내 업자들이 헐값에 들여와 잠깐 손을 봐서 거기다 막대한 이윤을 챙겨서 판매를 하게 되고, 엔진도 20~30년 지난 매우 위험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는 시동도 잘 안 걸려요. 바다에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 바다에 나갔다가 시동이 안 걸리면 표류하게 됩니다. 또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물이 새고 그래서 수시로 때워서 타고 다니고 그래요. 정말 위험한데. 먼바다에서는 휴대폰 통신도 잘 안됩니다. 참 목숨이 걸린 것을 너무 쉽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만드는 데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낡고 썩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김중우(49세, 부산).**

보트 판매업자들의 경우 수영 요트경기장 등 계류장에 보트를 묶어두고 팔게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논이나 밭에 야적한 상태로 사진만 찍어서 ○○(보트 거래 사이트) 같은 매매 사이트에 올리니깐 피싱보트로 적합한지 제대로 정보도 없이 구입했다 낭패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스피드감을 즐기며 항해하기 좋은 보트와 낚시하기 좋은 보트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트 수입·유통업자들은 보트를 사놓고 금방 팔리면 되는데 보트가 낚시에 적합하지 않다던지 문제가 있던지 해서 6개월, 1년씩 갖고 있다 보면 성능이 더욱 저하되고 계류비용, 유지비용 때문에 판매 가격은 더 비싸지는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인터넷 매매 사이트 등을 보면 같은 모델, 같은 보트인데 시간이 갈수록 매매가가 점점 올라갑니다.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류, 유지, 보수비용을 판매가에 포함을 시키더라구요 **최동호(55세, 부산).**

3) 관련법규 정비

바다보트피싱은 최근 들어 각광받기 시작한 해양스포츠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법에 걸쳐 있다. 그런 이유로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법 적용을 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동호인들 역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바다보트피싱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일관성 있는 법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법 정비 과정에 바다보트피싱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마땅하게 보트뉘시에 대한 법이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법이 갖다대는 사람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확실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아직 제대로 안돼 있다고 봐야지. 통신기는 뭐까지 (허용)된다 이런 것도 분명하게 안돼 있고, 휴대폰도 통신기가 된다고 했다가 어떤 해경을 만나면 왜 통신장비가 없냐고 따지기도 하고, 레이더가 있니 없니 말이 많죠. 밤에 야간항해할 때 신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태수(53세, 거제).**

얼마 전에 해경 쪽에서 배 등록과 관련해서 몇 피트 이상은 평수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요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해양경찰 측에) 규탄하기도 했었는데 해경에서 안전상의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동호인들도 어느 정도 따르긴 따르는데 법규가 좀 애매모호 한 게 전에는 고무보트의 경우 길이가 7m이건 2m 이건 엔진 5마력 이하면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콤비에 FRP 붙은 거는 크기가 크건 작건 5마력 이상은 또 등록을 해야 하고...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카톱(Car-Top) 보트라고 차 위에 얹어 이동할 수 있는 소형보트까지도 등록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

관성이 없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최동호(55세, 부산)**.

관련 법을 제정할 때 확실히 알고 보트낚시 동호인들이나 관련자들을 모아 놓고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래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뭘 모르면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법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무조건 규제만 하려고 현실은 모르고. 보트낚시 즐기려면 범법자가 안 될 수가 없다가. 조그만 고무보트 타는데 몇 백만원 짜리 GPS를 달아야 한다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들이 있어 **박민석(64세, 진해)**.

4) 규제 완화

연구 참여자들은 바다보트피싱 관련 각종 규제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한 보트 등록 절차, 지나치게 엄격한 각종 신고 규정, 운항 제한 및 운항 중 통제 등이 대표적인 규제의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를 통해 바다보트피싱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너무 복잡하고 엄정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레저관련 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꾸 규제를 하려고 들어요. 레저를 활성화할 때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죠. 등록상의 절차가 복잡해졌고... 항만법 등에 의해서 전에는 25마력 이상만 등록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선박이 등록 대상이 됐어요. 이제는 아무리 작은 보트라도 등록해야 하는 거죠. ... (중간 생략) ... 너무 규제하고 억압하다 보니까 편법과 아집이 생기고 분쟁의 소지도 생기는 거예요. 되도록 완화를 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방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보트피싱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우(49세, 부산)**.

트레일러 있으면 되는데 그릴려면 또 면허 따야 하고 허가 받아야 하고 아주 골

치가 아파. 복잡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따로 (트레일러) 면허 없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따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까다로운 게 많더라구. 원거리 향해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하고 나가면 편한데 신고를 하면 2시간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위치 어디냐고 막 묻고 언제 들어오냐 귀찮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니까.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되고 걸리면 또 벌금 내야 되고... 법이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고 엄청 불편하게 돼 있어. 너무 규제 위주라고 봐야지 **김태수(53세, 거제)**.

신고를 하고 나갈라고 해도 귀찮아. 바람만 조금 불어도 들어오라 난리니까. 제대로 낚시를 못하고 도저히 즐기지를 못해요. 어딴냐,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런다니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엄청 귀찮다니까 **박민석(64세, 진해)**.

20피트 이하는 평수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도....(현실성이 떨어진다.) 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며칠 몇 시에 인원 몇 명이 어디로 갔다 언제 들어오겠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등록을 하게 되면 무전기라든지 반사 레이더판, 구명정, GPS 등 (갖춰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지만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10해리 이상 벗어날 경우 해경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동호(55세, 부산)**.

V. 논의

지난 10년간 시대의 화두로 자리잡아 온 웰빙문화의 확산과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근무제의 전면 시행 등의 영향으로 여가를 즐겁게 보내는 수단으로서 산, 강, 바다 등 자연을 무대로 하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바다에서 즐기는 해양스포츠 분야는 동호인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3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고 전국 어디서든 두 시간이면 도착할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다.

보트는 해양스포츠의 필수 요소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좋은 집과 자동차 다음으로 레저보트 소유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2013년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즐기는 바다보트피싱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갯바위낚시 동호인들이 점차 바다보트피싱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일부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자 사치스러운 행위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진 상황이므로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보트를 통해 낚시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트 시장은 아직까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분야인 만큼 자본의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해양스포츠 산업과 문화의 발전은 당연히 바다보트피싱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 바다보트피싱 성장 전망

국내 바다보트피싱 역사는 길게 봐야 20년 남짓이다. 전통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물론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해양스포츠 분야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역사가 상당히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되는 장점으로 인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과거 다른 낚시 장르를 즐기던 사람들이 바다보트피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바다보트피싱이 여러 낚시 장르 중에서도 큰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피싱의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낚시 동호인들은 잠재적인 보트 구매자라는 측면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낚시 동호인 대부분이 보트를 소유하길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운항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보트를 구입했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낚시, 즉 바다보트피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트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구매력이 높은 낚시 동호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산 낚시보트의 개발이 절실하고, 이미 보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낚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2. 바다보트피싱 참여 동기

연구 결과 바다보트피싱은 스포츠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은 자신이 직접 보트를 몰고 나가 대상어를 찾는 과정에서 느끼

는 모험심과 도전정신, 대상어를 걸어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스릴, 풍성한 조과를 올렸을 때의 희열이 참여동기라고 밝혔다. 또한 낚시터와 포인트 선택에 제약이 적고 시즌에 따라 다양한 대상어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꼽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낚시 전문 잡지 바다낚시 & SEA LUR(2012)의 보도 내용과도 일치한다. 우선 자기 보트를 직접 몰고 바다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다. 자연을 무대로 한 도전인 만큼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이다. ‘조종도 서툰데 이 조그만 보트를 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절로 든다. 하지만 이런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스릴로 바뀌고 나중에는 자연스레 해소된다.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바다보트피싱의 또다른 매력은 자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낚시배를 타고 갯바위로 나갈 경우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다 보니 이것저것 제약이 따른다. 정해진 시간 동안 낚시해야 하고 낚시터나 포인트를 마음대로 고를 수도 없다. 또 원하는 낚시장르, 원하는 채비를 사용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바다보트피싱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출조해, 가고 싶은 곳을 맘껏 다니다 원하는 시간에 돌아오면 된다. 다른 조사의 눈치 볼 일이 없어 맘 편하고 편리하다. 조과 면에서도 앞선다. 낚시하는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어도 매우 많다. 다양한 장르의 낚시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돔, 참돔, 농어, 부시리, 넙치, 도다리, 갈치, 전갱이, 고등어, 무늬오징어, 주꾸미, 갑오징어, 우럭, 열기, 불락 등 낚시에 올라오는 물고기는 거의 전부가 바다보트피싱 대상어라고 할 수 있다.

3. 바다보트피싱 참여계약

연구 참여자들은 보트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진수시킬 수 있는 계류장과 슬로프 등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이 바다보트피싱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슬로프와 계류장은 바다보트피싱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해양스포츠의 한 영역으로서 바다보트피싱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입각해 제반 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건립돼 있는 어항 내 슬로프와 크레인 등을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 보트와 장비 구입 비용, 계류 비용, 유류대, 관리비, 각종 인허가 및 보험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보트와 엔진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보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은 또 어항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호인들이 지역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의 방문이 그 지역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수년에 걸쳐 해양스포츠에 대한 육성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계 기관 및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만드는 당사자들의 이해 수준이 낮아서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 신설 등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4. 바다보트피싱 발전 방안

연구 참여자들은 계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리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바다보트피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이 보트의 실수요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가정(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할 때, 그들에게 외면 받는 마리나 시설은 결국 고객 유치에 한계가 따를 것이다.

또한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수입 보트들을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트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보트 업계에서는 피싱보트 시장이 규모가 크고 수요자층이 뚜렷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만하다. 다만 피싱보트로서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갖추기 위해 소비자 요구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삼업(2012)은 바다보트낚시의 경우 비교적 큰 물고기를 겨냥하는 바다 선상낚시용 전용 보트가 일본에서 일부(야마하 제품) 수입·판매되고 있다. 201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2만4천달러를 웃도는 경제력의 향상과 함께 생활체육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갯바위낚시가 서서히 퇴조하는 가운데 보트낚시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장 형성은 2017~2020년 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절별로 회유하는 어종과 지역별 낚시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착수, 그리고 ‘낚시어선업’도 시대에 맞도록 개정(바다보트낚시면허·보트사양·사업자의 시장 진입요건 완화·체포 가능한 물고기의 길이와 개체수 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은 일관성 없는 관련 법규와 각종 규제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바다보트피싱이 활성화되려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중심의 현행 법규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7개월간 이뤄졌다. 현재 보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바다보트피싱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산, 거제, 진해 지역의 동호인 5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담, 서술적 설문조사,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바다보트피싱이 지속적인 동호인 증가에 힘입어 앞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이 구매력이 큰 보트의 수요자로서 관련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바다보트피싱 참여동기는 모험과 도전으로 상징되는 스포츠적 특성, 풍성한 조과, 자유로움과 다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바다보트피싱이 다른 낚시 장르에 비해 장점이 많고, 낚시 경력이 쌓일수록 바다보트피싱으로 전환하는 동호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셋째, 바다보트피싱 참여제한은 슬로프·계류장 등 시설부족, 경제적 부담, 어민과의 마찰, 관계 기관의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바다보트피싱이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심각한 제약 요소들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넷째, 바다보트피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리나 등 계류시설 확충, 보트 국산화를 통한 가격 합리화, 관련법규의 정비, 규제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바다보트피싱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제언

이 연구를 하면서 나타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와 같은 주제로 양적 연구도 이뤄지길 기대한다. 스포츠피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바다보트피싱 동호인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양적 연구의 토대도 마련될 것이다. 양적 연구는 바다보트피싱 활성화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둘째, 바다보트피싱은 스포츠피싱의 주류로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으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갯바위낚시와 배스낚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낚시에서 유독 먹는 문화가 발전하는 등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더욱 각광받을 수 있는 바다보트피싱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낚시업계 현황 시장규모 등 낚시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과 맞물려 여러 정부 기관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찾고 있으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만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강대승, 김철주(2009). 해양낚시객의 참여동기, 도시브랜드품질, 만족간의 관계를 통한 마케팅 전략.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5, 121-128.
- 고영주(2012). **대학 스포츠피싱 수업에서의 재미 특성과 수업만족 및 운동 지속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민생활체육회(2008). **스포츠 백과**. 대한미디어, 234-235.
- 김기철(2008). **레저 스킬과 레저 활동제약에 관한 연구 : 아웃도어 컴피티션 게임피싱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김도훈(2005). 여행비용 모형 분석을 통한 유어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미국 멕시코만 Red Grouper 유어부문을 대상으로. **수산경영론집**, 36(2), 121-134.
- 김동열(2008). **레저스포츠피싱 발전을 위한 제요인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체육대학원.
- 김병준, 오수학(2011). **체육학 연구방법**. 서울: 레인보우북스, 154-168.
- 김영천(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김용만, 김경춘, 정정희(2009).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참가동기가 서비스가치, 이벤트이미지, 이벤트만족도 및 재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2), 459-470
- 김육(2008). **루어낚시 동호인들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종호(2012). **바다보트피싱의 개념과 해양레저로서 위상**. 바다낚시 & SEA LURE 3월호, 360-361.
- 김태호, 박성은(2006). **장흥 해상낚시공원 조성에 따른 오염 물질 확산 범위**

- 예측. 한국수산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60-64.
- 나윤중, 강윤석(2007). 가족낚시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2007 인천 국제관광 학술대회 자료집, 199-208.
- 노용구, 이철원(2003). 여가학 연구방법론. 서울: 대경북스.
- 민병진(2008). 한국과 일본의 갯바위낚시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바다낚시 & SEA LURE(2012). 떠오르는 낚시 장르 보트피싱에 도전해보자. 부산: (주)파스미디어 9월호, 235-260.
- 박성쾌, 김수진, 김영자(2007).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9(2), 180-196.
- 박정석(2003). 유어낚시어업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박철형(2005). 유어낚시인구의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출조빈도함수 추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36(1), 81-101.
- 배상우, 이광호(2008). 전통 견지낚시의 스포츠적 특성.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호, 27-40.
- 서동찬(1998). 표준낚시백과사전. 서울: 도서출판 자연과학, 73-78
- 안국진(2013). 옛 그림으로 떠나는 낚시여행. 서울: (주)실천문학, 115-120.
- 예조원편집부(2011). 바다낚시 첫걸음. 서울: 예조원, 52-84.
- 오응수(2007). 부산·경남 지역 수상·해양레저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수상스키사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찰.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2(2), 109-112.
- 윤용우(2012). 보트낚시의 어제와 오늘. 낚시춘추, 서울: 황금시간.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광남(2003).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수산경영론집**, 34(1), 115-136.
- 이근모(2012). 학교체육으로서 해양스포츠 교육의 실현 가능성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1(1), 101-111.
- 이근모, 윤이중, 강효민, 이재형, 이남미, 이현미(2009).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인식 및 개선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8(6), 111-124.
- 이근모, 김준(2007).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가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2), 117-130.
- 이상고, 박정석(2003). 해양낚시 자원 및 생태환경적 문제와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 **수산해양교육연구**, 15(1), 25-46.
- 이원일, 김지태, 김영준(2006). 승마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들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편**, 45(3), 283-292.
- 이태신(2011). **체육학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이희찬(2010). 유어낚시 인구, 조획량, 지출 추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41(2), 45-60.
- 정윤철, 안병훈(2009). 스포츠피싱 참가 정도가 중독 성향 및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레저스포츠피싱학회지**, 1, 72-82.
- 조계근(2000). 강원도 내수면의 낚시면허제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 1-16.
- 조어대전(1980). Walton, I 저, 서울: 다락원.
- 조홍식(2009). **루어낚시 첫걸음 바다편**. 서울: 황금시간. 32-35.
- 지삼엽(2003). 해양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 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6), 241-257.
- 지삼엽(2012). **해양관광론 플러스**. 서울: 대경북스, 122-123

- 지삼업(2011). **해양스포츠론**. 서울: 대경북스, 22-23.
- 지삼업(2008). **마리나 관리론**. 서울: 대경북스, 74.
- 표희동, 박철형, 정진호(2008). 개별여행비용법을 이용한 바다 유어낚시의 소비자 잉여추정. *Ocean and Polar Research*, 30(2), 141-148.
- 한국낚시연합(2012). **2012 한국낚시정보 편람**. 서울: 예조원, 8-1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편찬부.
- 해양수산부(2005).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12-121.
- 해양수산부(2005). **낚시 종합발전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2004). **전국 도서 현황. 건설교통통계연보**.
- 허진영, 안혜진(2010). 프로 댄스스포츠인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9(2), 93-102.
- 홍성도(2007). 낚시객의 혼잡지각과 감정적 반응, 행동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31(3), 55-76.
- Brandl-Bredenbeck(1997). Sport involvement and self-concept in German and American adolescents. *Sociology of sport*, 32(4), 357~371.
- Fraenkel, J. R. & Wallan, N. E(2003). **How to design and evaluate research in education (5th ed)**. New York: NY, McGraw Hill.
- Patton, M. Q.(2002).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 method(3th ed.)**. Thousand Oaks, CA: Sage.
- Paul Quinnett(2006). **인간은 왜 낚시를 하는가? 낚시의 기원과 낚시꾼의 심리학**. 서울: 바다출판, 26-27.

A study on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for the Vitalization of Sea Boat Fishing

Sang Chool, Nam

Physical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mainly aims to look for the ways to develop the boat fishing which currently has been rising to the main stream of the sports fishing through the research of the recognition of the people of boat fishing club.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f the 5 persons who own their own boat with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of boat fishing, and lived in Pusan, Geojae, Chinhae ,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decided that the boat fishing will accelerate its growth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boat fishing club, and its people. At the same time club members are one of the biggest prospective customer for the boat industry, and the participants expect they will play a great role in the related industry.

Second, The motivation of the boat fishing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orts which is represented as adventure and challenge, fruitfulness, harmony, liberty and diversity. The participants also pointed out that boat fishing has more advantages rather than other fishing sports, and more people with longer experience tend to turn to boat fishing

Third, The restriction of the boat fishing is decided as the lack of the slope, ramp, and its related infrastructure, the conflict with fishermen, and the low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authorities. The participants commented that the boat fishing could not have led the steady growth due to the restrictions as pointed out above in spite of the its many advantages.

Fourth, It's urgently required that the infrastructure such as Marina should be increased, including reasonable price of the boat by domestic production, refresh of the related regulations, and the mitigation of regulations. Last but not least, the participants pointed out that all the effort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boat fishing will be fruitful only after people underst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boat fishing

부록 I. <참여관찰 노트>

1. 참여관찰 결과

1) 1차 출조

일시: 2012년 12월

장소: 경남 홍도 해상

참여인원: 바다보트피싱 동호인 8명

동원 보트: 30피트(400마력), 27피트(200마력) 2척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럽’은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클럽 회장인 K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은 오전 5시경 부산 녹산동에 있는 시애틀 마리나에 집결했다. 2011년 3월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215번지에 개장한 레저보트 전용 민간 마리나다. 전기,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수리, 보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선석 이용료는 연간 3백만원 정도다.

30피트와(400마력) 27피트(200마력) 보트 두 척에 나눠 타고 거제도 남쪽 먼 바다에 있는 홍도로 향했다. 부산에서 홍도까지는 직선거리로만 70km에 이른다. 평속 20노트로 달릴 경우 2시간 남짓 걸린다. 바다보트피싱 출조지로는 상당히 먼 거리지만 겨울에도 손맛을 보장할 정도로 낚시터로 뛰어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에서 출항한 보트 두 척과 진해에서 출항한 보트 한 척은 오전 8시 30분

경 홍도 해상에 도착했다. ○○클럽 회원들은 이날 부시리를 노리고 지깅을 했다. 부시리는 홍도를 대표하는 대상어로 일년 내내 낚이는데, 겨울에는 마릿수가 적은 대신 대형급이 자주 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동호인 J는 홍도는 먼 바다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규모가 작은 섬이기 때문에 파도와 바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소형 보트를 이용한 출조를 삼가야 하며, 특히 기상이 불규칙한 겨울에는 안전 문제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도 대체로 날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홍도 해상에서는 파도로 인한 롤링 현상이 심했다.

동호인들은 대형 부시리를 염두에 둔 지깅채비로 홍도 주변 해상에서 부지런히 낚시했다. 하지만 3시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입질 한 번 받지 못했다. 한파 영향으로 물속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라고 했다. 물고기 활성도가 낮은지 솜뱅이 두 마리를 제외하곤 잡어도 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점심 무렵에는 바람과 파도까지 강해졌다. 회항하는 길에 안경섬을 짚어보기로 하고 뱃머리를 부산 쪽으로 돌렸다. 안경섬에서는 동호인 한 사람이 70cm급 삼치를 걸어낸 게 이날 유일한 조과다.

2) 2차 출조

일시: 2013년 7월

장소: 부산 오류도 해상

참여인원: 바다보트피싱 동호인 4명

동원 보트: 26피트(225마력) 1척

이날 출조에는 바다보트피싱 동호회 회원인 ○○○씨의 보트를 이용했다. 일

본 야마하사에서 2000년에 제작한 26피트 길이 레저보트로, ○○○씨는 2012년 9월에 약 4천만원을 주고 중고로 구입했다. 선박 거래 전문 사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트를 고르고, 직접 찾아가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한 다음 구입을 결정했다. ○○○씨는 판매업체와 매매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개인끼리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럴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판매자의 신용도와 제품 상태 등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하였다.

레저 보트의 크기는 보통 길이(피트)로 따지는데, ○○○씨가 소유한 26피트 보트는 낚시용 치고는 큰 편이라고 했다. 하우스타입으로 조종실 외에도 누워서 쉴 수 있는 선실과 수세식 화장실, 어창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어군탐지기 와 플로터(바다용 GPS), 앵커모터, 서치라이트 등 항해 및 정박에 필요한 장비들과 야간 운항 장비들이 비치돼 있었다.

○○○씨 보트에는 선외기(엔진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 225마력 엔진이 장착돼 있는데, 배 구입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했다. 보통 엔진이 크고 힘이 좋을수록 연비는 낮다. 4행정 휘발유 엔진이 장착된 ○○○씨 보트의 경우 리터당 평균 1~1.5km다. 수영 요트경기장에서 출조지였던 오륙도 해상까지 왕복(거리 약 20km)할 경우 유류비가 3~4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씨는 현재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보트를 계류중이다. 전에는 어항에 계류를 했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출조할 때마다 불편이 컸다고 한다. 마리나 계류 비용은 보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씨는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마리나에 보트를 보관할 경우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점검,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은 관리업체와 계약해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씨는 마리나 보관의 단점으로 비용 부담이 크고 주유시설이 없어 매번 기름통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오후 7시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발한 바다보트피싱 동호인들은 20분 정

도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포인트에 도착한 시간이 피딩타임(입질 집중 시간)이었기에 곧바로 채비를 꾸려 낚시를 시작했다. 공략 지점은 일자방파제와 마주하고 있는 해군기지방파제였다. 동호인들은 벌써 몇 달째 이곳에서 농어 손맛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낚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질이 왔다. 테트라포드 사이 빈 공간에 루어를 던지자 기다렸다는 듯 농어가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입질이 약은지 바늘이 설걸려 끌어내는 도중 벗겨지고 말았다.

연속 입질을 기대했으나 이후 해가 완전히 지면서 입질이 끊겼다. 게다가 오후 8시가 되자 해군 기지 측에서 동호인들에게 철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사 시설 주변인 탓에 일몰 시각 이후에는 접근을 통제한다고 했다. 이날은 몇 가지 악재가 겹쳐 별 조과 없이 철수했다.

2.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

- 1) 동호인들은 바다보트피싱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바다보트피싱을 즐기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 2) 동호인들은 주로 온라인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다.
- 3) 동호회에 가입돼 바다보트피싱을 즐기는 사람 중에도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로 보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 4) 동호인들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새 보트보다는 중고보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 5) 동호인들은 계류 공간 확보와 비용 문제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 6) 바다보트피싱을 하려면 보트 보관, 관리, 운항, 정비 등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충분히 익혀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 7) 동호인들은 계절과 시즌에 따라 지역을 바꿔가며 출조한다.

- 8) 동호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여럿이 어울려 동반 출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
- 9) 동호인들은 대상어 중에서도 부시리, 방어, 삼치, 참돔 같이 사이즈가 큰 물고기를 선호한다.
- 10) 하우스보트는 실외 공간이 좁아 여러 사람이 낚시를 하기 불편하다.
- 11) 레이더, GPS, 어군탐지기 등 첨단 항해 장비를 갖추면 안전 운항과 조과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 12) 관련 법규에 대해 몰라 곤란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부록 II.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연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바다보트피싱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시는 바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와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내용은 오직 학문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신원 및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우리나라 ‘바다보트피싱’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과 심층면접에 응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13년 3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전공

연구자: 남 상 출

1. 귀하의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 귀하의 낚시 경력은 얼마나 되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3. 귀하의 바다보트피싱 경력은 얼마나 되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4. 귀하가 선호하는 낚시장르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 개라면 비중 순으로 나열해 주십시오.
5. 소유하고 있는 보트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6.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스포츠피싱의 특성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국내 바다보트피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8.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바다보트피싱의 특성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바다보트피싱이 스포츠피싱으로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국내 스포츠피싱에서 바다보트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앞으로 우리나라 바다보트피싱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바다보트피싱의 활성화가 스포츠피싱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3. 국내 바다보트피싱 활성화의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바다보트피싱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글

인류의 기원과 함께 태동한 낚시는 단순히 여가에 즐기는 레저 차원을 넘어 이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체육학의 연구 대상으로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제도적 지원 토대도 마련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해양스포츠로서 낚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낚시잡지 기자로서 전국을 돌며 낚시터 현장을 누빈 지 벌써 14년째입니다. 그동안 낚시 기술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왔지만, 솔직히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낚시가 지닌 스포츠적 특성과 학문적 가치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직장에 매인 몸으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가치를 높인다는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낚시가 스포츠로서 발전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낚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

체육학에 문외한이었던 제게 ‘스포츠피싱’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지삼엽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이태웅 교수님과 문선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회사 업무 차질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학원 공부를 허락해 주신 안국진 대표님과 오계원 사장님, 그리고 취재부 후배 기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도 논문 편집과 영문 번역을 도와준 정훈식 선배와 박영희 선배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을 믿고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준 아내 안선희와 어린 나이지만 아빠를 응원해준 딸 규비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 전합니다.